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9월 중순이 지나도록 기온이 30°C 가까이 육박하는 날들이 이어져 '여기가 홋카이도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홋카이도는 오봉(양력 8월 15일)이 지나면 시원해진다"는 얘기도 이제 옛말처럼 느껴지는 한편, 이번 가을은 늦더위의 여파로 단풍이 드는 시기도 늦어졌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예년 11월 초에 첫눈이 관측됩니다. 홋카이도의 봄과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계절이나 다르 없지만, 올 가을은 특히나 더 짧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초등학교 방문 강연

JICA 세계 교류광장

2023년도 한글강좌



8월 31일,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가미 시로이시(上白石)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와의 연계 업무로 진행된 이번 학교 방문에서는 한국-캄보디아-일본 3국의 이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일본의 여름'을 주제로 그룹을 나누어 여름 축제, 불꽃놀이, 여름철의 별미, 봉오도리와 성묘 등 여름 방학동안 경험한 일본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이 '캄보디아 왕국의 개요와 여름 축제 풍경'을, 김소현 국제교류원은 '한국의 여름철과 초등학생들의 여름 방학 생활'을 소개하였습니다.

9월 16일, JICA 홋카이도 삿포로 국제교류관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세계 교류광장(世界ふれあいひろば) 2023'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홋카이도청 국제과에서는 김소현 국제교류원(한국)과 아르미 국제교류원(핀란드)이 참가하여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코너에서는 홋카이도와 우호 제휴를 체결한 한국의 4개 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을 소개하는 패널전과 함께 한국의 관습, 식문화, 생활 문화 등을 배워보는 OX퀴즈대회를 열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2주간 총 4회에 걸쳐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홋카이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한글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은 대면 강좌 수강생 모집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좌를 진행하는 등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일상을 되찾은 올해는 코로나 이전처럼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여학 강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한글 자음 및 모음의 발음 등을 익히며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써보고, 한국 여행에 활용할 만한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홋카이도 마라톤-서울마라톤 선수 교류



8월 27일, 약 2만 명의 러너들이 삿포로 시내를 달리는 '홋카이도 마라톤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한 기후 덕분에 홋카이도 마라톤은 매년 8월 말에 개최되어 왔지만, 올해는 대회 전날까지 삿포로시의 기온이 35°C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홋카이도 마라톤은 우호제휴 체결 지역인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서울마라톤(동아마라톤)'과 2011년에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선수들을 상호 초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선수 교류가 4년만에 재개되어, 한국에서 선발된 남녀 선수 각 1명이 홋카이도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방문

홋카이도에서는 2018년 9월 6일, 이부리 지방에 진도 7의 큰 지진이 일어나, 산사태가 나고 홋카이도 전역이 정전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방재 의식'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평소부터 다양한 방재 훈련들이 실시되곤 합니다. 9월은 방재의 달이자 홋카이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방재 의식이 고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이번에는 국제과의 국제교류원들이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그룹을 대상으로 방재 교육과 체험이 진행됩니다.

▶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시로이시구 소재)



이번 견학에서는 삿포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형 재해 상황 등을 연출한 재해 가상체험 코너에서 3D영상을 시청한 후, 폭풍 체험, 연기 대피 체험, 소화기 체험, 지진 체험 코너를 들렀습니다. 삿포로시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지만 산 근처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토사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도가 역류하거나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3D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 체험 코너에서는 화재를 맞닥뜨렸을 경우, 주변에 큰 소리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고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해야 하지만, 불을 끄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대피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진 체험 코너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침대 주변이나 출입문 근처에 놓인 가구가 지진으로 쓰러졌을 경우 아래에 사람이 깔리거나, 대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집안의 가구 배치를 고려하고, 가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국제교류원 3인방 출동!



▲ 지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방



▲ 삿포로 방재 핸드북 (한국어판 QR코드 ↑)

삿포로에서는 각 세대에 '침수 해저드맵' 간행물이 배포됩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의 예상 피해범위, 거주지와 가까운 피난소의 위치 등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이며, 저희 집에도 지금까지 몇 번 배달되었습니다.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는 종이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식이 다소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가끔씩 우편함에 배달되는 해저드맵은 시민들에게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평소부터 대비를 해둘 것을 당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상황에서는 핸드폰 충전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지므로 인쇄물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울들어 '생존 가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사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 두는 생존 가방(방재용품 키트)을 평상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방재 용품을 고품질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재해 시에는 식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비하여 평소에 자주 먹는 가공식품을 넉넉히 구입해 두고, 소진한 만큼 재고를 채워 비상식을 상시 비축해 두는 '롤링스톡'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수년간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보존식'의 경우, 일반 마트나 잡화점에도 상품 판매 코너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으며 종류도 다양합니다.

홋카이도를 달려보자

저는 호기심에 참가해본 10km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기의 즐거움과 성취감에 매료되어 러닝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취미로 달리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과는 다르게 삿포로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러닝 크루 활동이 드문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든 열정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새벽 4시부터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도로 양쪽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인 겨울철에는 눈보라를 뚫고 빙판길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러 여행을 간다고?"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도 러닝에 진심인 편입니다. 특히 낯선 곳에서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을 겸해 여러 나라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왔습니다. 지역의 활기찬 분위기와 열띤 응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코스를 달리며 가이드북에는 소개되지 않은 멋진 장소들까지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참가했던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하코다테 마라톤



업다운이 심한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에서 가장 가혹한 편런'으로 불리는 대회입니다. 매년 7월에 개최되어 왔지만, 무더위로 인해 작년에는 중도 포기를 하는 참가자들이 속출한 관계로 올해는 참가자들의 열사병 방지를 위해 6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었습니다.

폭염 속에 그늘이 없는 코스를 달리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노면전차 선로를 따라 달리며 지역 명소들을 구경할 수 있어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코다테 마라톤은 참가자들에게 호화로운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36km지점 부근에서는 홋카이도의 별미인 유바리 멜론과 해산물 덮밥, 소금라면을 나눠주고 있었고, 완주 후에는 하코다테 우유와 함께 지역의 명물인 이카메시(오징어 순대), 가고메 다시마를 넣은 된장국을 먹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멋진 풍경부터 맛있는 음식까지 홋카이도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대회입니다.

일본 최북단 왓카나이 평화 마라톤



9월 첫째 주에는 왓카나이시에서 '일본 최북단 왓카나이 평화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스타트 지점인 '소야 곶(宗谷岬)'은 맑은 날이면 사할린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러시아와 가까운 곳입니다. 삿포로에서 소야 곶까지는 고속버스로 7시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저는 대회 전날 밤에 야간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선선한 날씨를 내심 기대했지만, 당일 기온은 27°C로 무척 더웠습니다. 게다가, 97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지역답게 거센 맞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쳐 몸이 앞으로 잘 나아가가지 않았습니

다. 이 대회의 풀코스 참가자는 700여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로가 전혀 붐비지 않았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코스를 달리며 드넓은 자연을 느껴볼 수도 있었습니다.

급수대에서는 홋카이도 지역의 로컬 편의점인 '세이코 마트'의 직원 분들이 음료와 간식을 나눠주며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계셔서 지역 밀착형 기업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마라톤



홋카이도 마라톤은 일본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름에 열리는 풀마라톤 대회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코스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며, 참가자들이 2만 명 정도로 많아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치토세 JAL 국제마라톤



저는 하프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을 달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삼림욕을 하는 듯했습니다. 기분 좋게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시원하고도 싱그러운 6월의 공기를 마시며 달릴 수 있어 홋카이도 다운 대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